



승리 염원하는 팬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이달 중 개막하는 가운데 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찾은 팬들이 관중석을 채우고 있다. 정규시즌 막판 치열한 3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KIA는 오는 3-5일 잠실에서 LG 트윈스와 운명의 3연전을 치른다. /조영권 기자

가을야구 온다...호랑이 주말 빅매치

KIA, 3-5일 LG와 '잠실 3연전'
준PO 직행 티켓 향한 한판 승부
LG에 2경기 차... '최대 승부처'
네일·시라카와·올러 선발 유력
김도영·오스틴 홈런 경쟁 주목

가을야구 시즌이 돌아온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이달 개막할 예정인 가운데 KIA 타이거즈가 정규시즌 막판, 준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향한 주말 '빅매치'를 펼친다.

KIA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잠실야구장에서 LG 트윈스와 맞붙는다. 막판 3위 싸움의 최대 승부처다. 포스트시즌을 앞둔 KIA는 현재 추격과 수성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앞에는 LG, 뒤에는 두산이다. 잠실 LG 3연전에서 두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LG와의 직접 맞대결에서 승수를 쌓아 추격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KIA는 72승 60패 2무로 4위다. 3위 LG와의 격차는 2경기다. 이날까지 KIA는 10경기, LG는 9경기를 남겨뒀다.

KIA는 9월 29-30일 선두 KT에 잇따라 졌다. LG도 두 경기 모두 패해 4연패에 빠졌다. 두 팀의 간격은 그대로다. KIA는 따라붙을 기회를 놓쳤다.

직접 맞대결에서 이기면 격차는 한 경기씩 줄어든다. 다른 팀의 도움 없이 3위에 다가설 수 있다. 반대로 패하면 간격은 벌어진다. 만회할 경기도 줄어든다.

3위와 4위는 가을야구 첫 관문부터 다르다. 3위는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한다. 4위는 5위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야 한다. 한 단계를 건너뛴 자리를 놓고 벌이는 승부다.

뒤도 돌아봐야 한다. 같은 기간 5위 두산이 2연승을 달리며 바짝 따라붙었다. KIA와는 3경기 차다.

LG를 쫓는 동안 두산의 접근도 막아야 한다. 잠실에서 밀리면 3위 추격보다 4위 수성이 급해질 수 있다.

선발진의 역할도 중요하다. 네일과 시라카와, 올러가 차례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세 투수가 초반 흐름을 잡아줘야 한다. 긴 이닝을 버티면 불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마지막 고비는 뒷문이다. KIA는 KT에 패한 두 경기 모두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첫 경기에는 이의리가 9회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을 내줬다. 결국 연장전에서 졌다.

다음 날 경기에선 홈런 두 방에 무너졌다. 2-0으로 앞선 7회 박도규가 동점 투런포를 맞았다. 9회에는 전상현이 결승 솔로포를 허용했다. LG전에서 승수를 쌓으려면 불펜도 안정을 찾아야 한다.

타선의 지원도 필요하다. 득점 기회를 살려 점수 차를 벌려야 한다. 점점의 부담을 덜어줄 추

가점이 중요하다. 올 시즌 LG전에서는 5승 7패로 밀린다. 다만 최근 맞대결에서는 웃었다. 지난달 28일 광주에서 5-1로 이겼다. 다음 날 경기는 비로 노게임이 선언됐다. KIA는 직전 맞대결에서 거둔 승리를 잠실에서도 이어가야 한다.

김도영의 방망이에도 시선이 쏠린다. 9월 30일 기준 4홈런으로 이 부문 선두다. 이번에 맞붙는 LG에는 3홈런으로 3위인 오스틴이 있다. 두 선수의 홈런 대결도 볼거리다.

KIA는 김도영의 장타에 기대를 건다. 승부처에서 터지는 한 방은 3위 추격에 힘을 보탠다. 팀은 LG를 쫓고, 김도영은 홈런왕 경쟁에서 달아나야 한다.

잠실에서 필요한 것은 승리다. LG와의 간격을 좁히고 두산의 추격을 따돌릴 기회다.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 남은 순위 싸움의 방향이 달라진다. KIA의 가을야구 출발선이 걸린 승부다. /주홍철 기자

Today	
김병내 시장군수구청장협회대표회장인터뷰	5면
청춘 빛포차 양성화 '헛구호'	6면
정지호 작가의 'Happy-Bus-Day'	9면
※개천절 대체휴무5일자 신문 쉽니다	

알림

바리톤 김동규 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24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가곡·월드뮤직 등 다양한 레퍼토리 선봬

가을이면 영감처럼 떠오르는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의 주인공 바리톤 김동규가 10월,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오는 10월24일(토)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바리톤 김동규 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개최합니다.

이번 무대는 가곡과 클래식은 물론 월드뮤직, 영화 OST, 뮤지컬 넘버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집니다. 'Il Mondo', '봄치녀', '그리움', 'Stand by Me', 'Bella Ciao' 등 귀에 익은 명곡들이 김동규 특유의 깊고 따뜻한 음색으로 펼쳐지며, 무대의 대미는 그의 대표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장식합니다.

테너 하세훈, 바리톤 신흥규, 소프라노 박



현진이 함께 무대에 오르고, 피아노·일렉트릭·드럼·베이스로 구성된 DK앙상블이 풍성한 선율을 더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공연이 깊어가는 가을, 독자 여러분께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년 10월24일(토) 오후 7시
-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 ▲출연: 바리톤 김동규, 테너 하세훈, 바리톤 신흥규, 소프라노 박현진, DK앙상블
- ▲관람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 ▲예매: 예스24(9월15일 티켓 오픈)
- ▲문의: 광주매일신문 기획사업국 062-650-2078

검찰 '역사속으로'...중수·공소청 오늘 출범

초대 광주중수청장에 임은정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눠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공식 출범하면서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린다.

▶관련기사 6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을 시행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검찰이 함께 행사해 온 수사과 기소 권한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공소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등을 전담한다.

검찰이 맡아왔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



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외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하는 중수청 첫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청장에 검찰 출신인 최재민 변호사,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 광주중수청장에 임은정(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각각 낙점됐다.

중수청은 출범 시점에 전체 정원의 66.1%인 1천900명만 총원한 채 업무를 시작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필수 기능부터 우선 가동한 뒤 12월 초 완전히 개통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봉선동, 남구청)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